쎈터에서 하는 방법을 간단히 적겠습니다.

그런데 거긴 이젠 이방법이 10여년동안 체계화가 되서 잘 되는데 이제 시작해서 되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

명백한건 한달에 10k하는 사람들두 모바일 개발할때 build 하는 방법두 모른다는겁니다.

오직 과제 따서 뿌리구 …

먼저 시간있을때 과제를 진짜같이 뿌려가지구 각 분야(모바일, 웹, 게임, 디자인, 등 모든 분야, 또 매개 분야에서두 또 웹이라구 하면 거기서 wordpress, Laravel, MEAN 등 세부 분야에 까지)의 개발자들을 많이 찾아놓습니다.

Skype가 모자릴 정도루…

이때 개발자를 각분야에서 실력있는 유럽개발자, 레이팅이 낮은 인디아나, 파키스탄 개발자들을 다 찾아 놓습니다.

이때 과제를 뿌려서 개발자를 찾을때 저리 각 분야의 비드문두 같이 건사합니다.

물론 비드문은 template가 아닌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것으로.

그리구 개발자들과 대화할때는 진짜 과제가 있는것 처럼 미리 거짓 NDA사인 까지 시키구 각종 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을 다 뽑아냅니다.  
이런 방법으로 미리 개발자들과 비드문, 그리구 기술적인 자료까지 다 건사해놓습니다.

그리구 과제따는 문제인데 하루종일 계정만들구, 비드하구… 이런것 밖에 없습니다.  
upwork, freelancer, Guru, 각종 계정을 많이 만들구 하루에 보통 60~80알 비드합니다.  
물론 upwork 같은건 template계정을 만들어서 하루만에 비드알 다 쓰구는 그 계정 판치구…

어쨌든 리력이 없어두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히 찌르면 과제 따구, 어쨌든 과제 따는 묘기는 있습니다.

이렇게 해서 인터뷰가 오면 제꺽 실력있는 유럽개발자를 찾아가지구 그 개발자와 대방사이 대화리력을 복사해서 넘기는 식으로 합니다, 자긴 전혀 모르구…  
이렇게 해서 과제 따며는 그 과제를 눅거리 인디아 개발자에게 뿌립니다.

이게 전부입니다.

그런데 이 방법두 쉽지는 않습니다,  
어쨌든 참고 해보십시오.